

EU 연구혁신 주간 동향 보고

<24.09.18, 한-EU연구협력센터>

- **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, 새로운 집행위원단 구성 발표(9.17)**
 - 폰데어라이엔은 새롭게 제안된 집행위원단이 유럽의 경쟁력, 안보,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구축된 핵심 우선순위에 따라 구성되었음을 밝힘
 - 연구혁신 담당 집행위원은 불가리아의 Ekaterina Zaharieva가 맡게 되었으며, 포트폴리오는 기존의 연구·혁신·문화·교육·청년에서 스타트업·연구·혁신 담당으로 변경됨
- **브르통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, EU 집행위원회 사임(9.16)**
 - 2019년부터 EU의 디지털 규제를 주도해 온 브르통 내부시장 집행위원이 집행위원직에서 사임하는 동시에 차기 프랑스 집행위원 후보자 철회도 발표
 - 브르통은 “집행위원장은 본인과의 상의없이 개인적인 이유로 프랑스로게 후보자를 철회하라고 요청하였으며, 그 정치적 거래로 미래 집행위원단에서 더 영향력 있는 포트폴리오를 제시하였다”라고 밝힘
 - EU에서 두 번째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프랑스가 산업 정책과 국방을 포함하여 보다 큰 포트폴리오를 담당하는 부집행위원장 직책을 원함에 따라 기존 브르통에게 제안된 직책에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됨
 - ※ 한편, 이러한 움직임은 집행위원단 내 성별균형을 맞추기 위함이라는 견해도 있었으나, 프랑스는 또 다른 남성 후보를 지명함 (집행위원장의 꾸준한 여성 집행위원 지명 추구에 슬로베니아, 루마니아 등 국가는 남성 후보를 여성으로 교체한 바 있음)
- **이탈리아 전 총리 드라기 보고서, EU 자체 Darpa 기관 설립 제안(9.12)**
 - 드라기 보고서는 2021년에 100억 유로의 예산으로 출범한 호라이즌 유럽 산하 유럽혁신위원회(EIC)를 기반으로 Arpa 유형의 기관을 만들고자 함
 - ※ 영국의 경우 유사한 이름의 Aria를 설립하였고, 독일의 경우도 Arpa를 모델로 5년 전에 혁신 기관 Sprin-D를 설립한 바 있음
 - EIC는 집행위 관리들로부터 충분히 독립적이지 않고, 행정절차 등이 너무 느리다는 등의 비판을 받아온 바 있음
 - 집행위는 통제력이 더 약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Arpa 스타일의 기구를 지지하나, 오히려 회원국이 자국의 혁신 기관과의 경쟁을 우려함에 따라 이에 반대할 여지가 있음
 - 새롭고 더 독립적인 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EIC 처음 설립과 마찬가지로 잠재적으로 위험한 회사에 EU 기금을 투자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 되는 등 예산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음
- (기타) ▲**호라이즌 유럽, 3억 8천만 유로 규모 학위 질한 연구 파트너십 출범(9.12)**
 ▲**MSCA PF 2024 공모 결과, 약 1,700개 프로젝트에 4억 1,720만 유로(9.12)**